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①
 11. ②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⑤ 26. ③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③ 32. ② 33. ②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④ 40. ⑤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③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희망 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라고 말하고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모의 면접’의 흐름으로 볼 때 피면접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한 질문의 내용이나 의도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과, 세 번째 발화에서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라고 반응하고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② 면접자의 두 번째 발화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③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이 말은 학생이 ~ 편안한 마음으로 ~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며 질문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⑤ 피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약간 높은 목소리로 토박토박’과 두 번째 발화 중 반언어적 표현인 ‘힘을 주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2. 면접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평가한다면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선생님’의 안내 중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 글을 간단히 써서 면접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었죠?’와 면접자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의 글을 보니’,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보세요.’를 근거로 할 때,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② ‘선생님’의 안내에서 ‘피면접자의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 것과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③ ㉠은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질문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④ 면접자가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

데 ~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고려한다면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다.

3. 면접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피면접자는 [A]에서 질문지의 질문을 고려하면서 면접자의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파악한 것과, 질문의 성격을 ‘의견’보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두 매체를 대조하여 답하기로 한 답변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묻는 것이라고 질문을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발언 중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질문 파악은 적절하나, 답변 계획에서 ‘글과 그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하려는 것은 ‘차이’를 묻는 질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질문을 표현 수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면접자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⑤ 질문의 내용을 표현 수단이 다른 이유를 묻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독서 토론 노트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맺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이 시간에 저는 ~ 제안하고자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서 토론 노트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작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학생 5’는 부장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토론 노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독서 토론 노트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듣기 전략에 해당하는

다. 따라서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생각은 발표자가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한 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발표 동기에 공감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의 생각은 발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므로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 3’의 ‘~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발표에 사용된 설문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학생 4’의 생각은 발표의 내용이 독서 토론 노트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한정된 것에 주목한 것이므로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논설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유의 사항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설정’해야 하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을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의 사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논설문의 특징이므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이라는 화제에 대해 비전문가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다. ③ 유의 사항에서 ‘관련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글에 쓰이는 여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유의 사항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라고 하였으므로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용은 참신하게 구성’하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⑤ 유의 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뿐만 아니라 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 설명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에서 고령 근로자의 65%가 경제적 안정을 근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를 보면 생계비 확보 욕구 충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장 진입형’의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이 ‘사회 공헌형’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활용해 ㉔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근로자들의 근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생계 수단에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설은 ‘고령화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효 문화의 회복 촉구’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이 글의 논지는 노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 참여를 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므로, 노인들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서론에서 언급하여 논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다)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장점을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고취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노인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다루고 있는 자료로, 이를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 공헌형에 치중되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 제시된 민간 분야 부진의 주요 요인을 해소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 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노인 일자리의 현황과 노인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을 때의 장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여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립한 논지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이므로 이미 고령 사회 진입을 전제로 한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소외된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문제는 <보기 1>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사회의 효 문화 회복 촉구’는 연설과 동일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설과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을 쓰기’라는 작문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 ③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 문제는 <보기 1>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 1>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10]

9.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나)를 작성하였다. 이는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② (가)

의 ‘자료 수집’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나)에는 잡상의 다양한 형상이나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 등 잡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첫 단락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잡상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쓰기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계획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는 ‘글 쓰는 목적’에 따라, (나)에서 잡상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서 (나)의 마지막 단락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직유법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에서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잡상은~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잡상의 가치를 드러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으므로 ㉠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열병식을 하듯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마치~옛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궁궐의 비밀을 전해 주는 것’에서 잡상의 가치가 담겨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에 잡상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온고지신’의 자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한글 맞춤법 이해, 적용

정답해설 : ㉠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소리를 내는’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이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그러나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높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를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로 연음 현상에 따른 잘못된 표기의 사례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의 ‘들어서다 / 드러서다’는 ‘들어서다’의 연음에 따른 발음 [드러서다]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 ㉢의 ‘그렇지 /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발음 [그러치]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이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④ '엷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얼켜]로 발음되는데, 이를 표기에까지 반영하여 '얼켜'로 잘못 적는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은 '해돋이'의 구개음화에 따른 발음 [해도지]가 표기로 잘못 이어진 사례인데, '금불이'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y]'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12.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잘못된 우리말 문장을 '이유'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③으로,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한다'와 '동물은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술어 '기대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 '사람에게'가 추가되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례 1]의 주어 '사람들은'과 서술어 '경향이다'가 호응하지 않지만 서술어를 '경향인 것이다'로 수정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② [사례 2]에서는 '야구를 차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공이나 야구를 하다'로 수정하면 이번에는 '공을 하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를 하거나 공을 찬다.' 정도로 수정하여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④ [사례 4]는 '사람을 좋아하는'이 꾸미는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의문이다. '고양이가' 뒤에 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이러한 중의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나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정도로 수정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사례 5]는 조사가 잘못 쓰인 문장인데, '누구나'를 '누구도'로 수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조사의 오용을 바로잡아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

13. 로마자 표기법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 ㉡, ㉢의 로마자 표기 사례를 통해 로마자 표기의 원칙을 수험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앞집'은 [압집]으로 발음되지만 '장롱[장:농]'에서와 마찬가지로 'ㅈ'를 'j'로 적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집'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ㅈ → [ㅈㅈ])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락]을 'garak'으로 적은 사례에서 모음 앞의 'ㄱ'과 어말의 'ㄱ'을 각각 'g'와 'k'로 다르게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앞’은 [압]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종성을 ‘p’로 적는 것이다. ③ 장음을 표시하는 별도의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장롱’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 [장: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jangnong’으로 적는 것이다. 자음 동화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4.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②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5.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 ㉡, ㉢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㉔의 ‘땀아가다’는 ‘땀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땀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땀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땀아 가다’와 붙여 쓴 ‘땀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㉑, ㉒, ㉔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㉑이다. **정답 ㉑**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에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기 2>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㉑이다. 먼저, ㉑의 ‘아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ㄹ’이 양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를 취해야 한다. 이때, ‘ㄹ’이 양성 모음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 1>의 (예) 중에서 첫 번째에 제시한 ‘놈’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현대어 풀이를 통해 볼 때 ㉒의 ‘술워’는 현대 국어 ‘수레’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형격 조사 ‘ㄹ’을 취해야 한다. <보기 1>의 (예) 중에서 네 번째에 제시한 ‘나모(나무)’가 ‘ㄹ’을 관형격 조사로 취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답 ㉑**

[17~20] 예술, ‘작가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가주의 비평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주의는 당시의 상투적인 프랑스 영화에 반발하여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하였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가장 산업화된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상업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을 복권시키기에 이른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좋은’ 영화와 ‘위대한’ 영화들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 작가주의의 개념 및 영화사적 의의

17. 글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은 1문단에서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3~5문단에 걸쳐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할리우드 영화와 히치콕 감독을 예로 들고 있다. 또 6문단에서 작가주의의 영향력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윗글은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㉒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㉓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비평 이론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⑤ 6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뒷글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맥거핀’ 기법은, 히치콕 감독이 관객의 오인을 부추겨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극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작가주의는 당대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 이유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할리우드에서는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과 더불어 영화 흥행의 변수로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③ 5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이 복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뒷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한 결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뒷글의 ㉠이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여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반면, <보기>의 ㉡은 감독을 영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비

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1, 2문단에 따르면, ㉠은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여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④ ㉡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과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1~24] 인문, ‘정합설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에 대한 여러 관점 중 하나인 정합설에서의 ‘정합적이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관계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전의 명제와 모순만 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명제는 모두 참이 된다. 그렇지만 관련 없는 명제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다른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정합적이라는 것을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설명적 연관은 두 명제 사이의 그럴듯한 연관성만 있으면 정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측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확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정합설에서 ‘정합적이다’의 의미 -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모순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정의되는 관계인 ‘함축’에서는 모순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가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문단에서 정합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명제와의 관계가 정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인 명제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를 말한다. ‘함축’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설명되므로 모순이 있는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거짓이 된다. ⑤ ‘설명적 연관’의 한계에 대해서는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2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참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참이 될 수 없다. 만약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거짓(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작거나 같은 경우)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민수가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데,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라면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③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경우라면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목요일이라면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⑤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역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명제와 함축 관계에 있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라는 명제는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는 <보기> 명제와 전혀 관련 없는 명제이지만, <보기> 명제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는 참이 된다. ②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면 우리 집도 반드시 정전이 된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명제도 참이 된다. ③ 예비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된다. ④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명제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밝혀내다’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진상,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여 드러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의 ‘해결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밝혀내다’를 ㉠ 대신에 바꾸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25~26] 과학,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지문해설 : 이 글은 맨눈으로 본 별의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별의 실제 밝기인 ‘절

대 등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 총량인 '복사 플럭스'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절대 등급은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하는데,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또한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 별의 등급과 거리, 크기, 온도와 관계

2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별의 겉보기 등급은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으로 나타내다가, 그 값이 확장되어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2등급이 차이가 나므로 약 2.5^2 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이 더 어둡게 보인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1~6등급을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다고 했으므로,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고 제시되었으므로,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2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되며,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이고,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이다. B별의 광도는 반지름만 비교했을 때는 A별의 $1/100$ 이지만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별 B가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이고,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이기 때문에,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별의 등급은 밝은 별을 작은 수로 나타낸다고 하였고, 2문단에 따르면 ‘리겔’의 절대 등급이 -6.8 정도이다. <보기>에서 별 A의 절대등급은 -1이므로,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어두운 별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거리 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하였으므로, 거리 지수가 7인 별 B는 4문단에 있는 거리 지수가 5.6인 ‘북극성’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극성’이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지구에서 보는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다. <보기>에서 별 B의 겉보기 등급은 1이므로,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밝게 보임을 알 수 있다.

[27~30] 사회,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배경과 그 유형’

지문해설: 이 글은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규제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모두 이익을 얻으려 하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서, 광고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광고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를 소비자로 보는 것이 소비자 부담 원칙인데, 이는 소비자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소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확하게 광고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광고 규제 또한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는데,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법적 규제와,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로 등장한 자율 규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

[주제]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의 배경과 그 유형

27.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1문단에서는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업 광고 규제의 배경에 해당한다. 2~3문단에서는 광고의 책임 주체를 소비자로 보느냐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4~5문단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정부 기관이나 기업 자율이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규제 유형에 관해서도 그러한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표제)’에 관한 글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부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광고’의 사회적 영향이 언급되었을 뿐,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의 주체에 따라 광고 규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의 역할이 모두 언급되었으므로, 부제에 쓰인 대로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로 보기 어렵다. ④ 광고의 역기능이 언급되었을 뿐, 광고 규제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광고 규제를 반대하는 시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표제의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28.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3문단의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강조한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에 따르면, 자율 규제가 법적 규제를 잘 보완할수록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진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1문단에서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상충 정도가 크면 그 규제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9.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르면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오히려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따르면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하므로 정부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은 기업에게 있으므로,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② ㉡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③ ㉡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에 따르면 광고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했다. 따라서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더 크다. ⑤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고 하였으므로 ㉠, ㉡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기>의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아니라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으므로,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소비자 규제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데 광고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자율 규제의 주체인 기업과 긴장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④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의 이기적인 행태를 한 광고 주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규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1~33] 현대시 - 김광균, ‘와사등’ / 박용래 ‘울타리 밖’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해설: (가)는 현대인의 고독감을 우울하면서도 애상적인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아무 것도 없이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등불’을 초점으로, 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이미지 위주의 표현으로 현란하면서도 황폐한 도시 문명과 그 속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불안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도시 문명 속에서 단절과 소외를 느끼는 시적 화자의 우울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감과 불안

(나) 박용래 ‘울타리 밖’

작품해설: (나)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회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잘 나타나 있다. 고향에는 소년과 소녀가 서로 낮이 설어도 그 낮설음의 거리를 좁혀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리고 2연에 나타나는 풍경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사물의 생명력이 순화되고 깨어나는 밝은 이미지이다.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제비는 약동하는 생명의 활기찬 움직임을 나타내며, 상승의 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그곳은 ‘별’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밤이나 낮에도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내밀한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은’

작가가 돌아가고자 하는 전통적 세계라 할 수 있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을 창백한 묘석(墓石)’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를 마지막 연(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하여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는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키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내 호올로’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만, 표면적 화자를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으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적막한 배경인 ‘비인 하늘’에 걸려 있는 사물인 ‘차단-한 등불 하나’에 주목하고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나 호올로’를 통해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길-게 늘인 그림자’는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의 ‘천연’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는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공허한 군중의 행렬’ 등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 ‘천연’한 자연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진 고층(高層)’, ‘찬란한 야경’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별이 뜨는’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회화적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가)에는 ‘슬픈’, ‘낯설은’, ‘무거운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마늘쫘’,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가)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나)는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4~38] 현대소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가상의 섬인 ‘조마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설정된 서술자 ‘나’는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 ‘건우’를 통해서 섬 주민들을 알게 되고, 섬 주민들의 처지와 삶의 내력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낙동강에 홍수가 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둑’을 허물려 하고, 섬의 법적 소유자는 ‘둑’을 지키려 한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건우’의 할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권력자들에게 패배하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와 다수의 주민 사이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조마이섬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 한 여성’임을,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 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렵고, 서술자의 판단 또한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교에서의 ‘건우’에 관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에 가깝다.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별다른 기술이 없이 하는 노동)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그의 고된 생활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건우’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에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독’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보기>의 시나리오에서, ‘손에 쥔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

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 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시작 대목에서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 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마이섬’의 두 어른들이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어른들이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그곳의 어른들에게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에서 언급한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등 적극적이고도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현실의 부조리함, 어처구니없음의 뜻에 가깝고,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작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깊은 원한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각골통한(刻骨痛恨)이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39~42]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임경업전'

작품해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민족적 영웅이었던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자호란의 국치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간신들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출제된 부분에는 임경업의 충신으로서의 면모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 김자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충절과 강직함에 감동한 호왕의 배려로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한 상태이며,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자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경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왕이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라고 말한 부분과 이에 대해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호왕이 '장군이 내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고 말한 부분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호왕의 여러 신하들이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소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켜 주는 장면과 임경업이 부마가 되어주기를 재삼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장면은 모두 호왕이 임경업의 강직함에 얼마나 깊이 감동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건 전개 of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임경업 부마 삼기'가 성공했다면 임경업은 계속 청나라에 머물러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이 실패함으로 공간적 배경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계기가 무산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공주가 ~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에서 알 수 있듯이 호왕의 제의에 공주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업이 부마에 뽑힐까 두려워하여'와 '경업이 죽기로써 쫓지 아니하니'에서 알 수 있듯

이 임경업은 부마가 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주는 아버지의 제안에 관상 보기를 청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관상을 본 결과와 상관없이 임경업에게 부마 제안을 하는 호왕의 모습이 지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이 왕실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죽기로써 쫓지 아니하니’와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억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심이 담긴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는 회유에 대응하는 말이고, ㉡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라는 권유에 대답하는 말이다. ② ㉢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를 통해, ㉣은 ‘조강지처가 있사오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사건을, ㉥은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결혼한 사람임을 밝혀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④ ㉦은 호왕에게 ‘네게 항복하리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하기이며, ㉧은 ‘지극히 황공하며’와 ‘존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를 높이며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낭독을 통해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의 의주 백성들은 임경업이 칼을 쓰고 잡혀가는 것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임경업전이 창작되어 향유되던 시대의 사람들인 청중은 청에 대한 적대감과 임경업에 대한 흥미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작품 내용 전반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청중이 무슨 연고로 임경업이 잡혀가는지를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적국의 왕을 꾸짖는 임경업의 심리를 느끼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은 ‘세자’에 대한 ‘주상’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므로 ‘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환상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으로 하여금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배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3~45] 고전시가 - 이항,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총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전반부인 전(前) 6곡의 언지(言志)와 후반부인 후(後) 6곡의 언학(言學)으로 나뉘어 있다. 전 6곡인 언지는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흥을, 후 6곡인 언학은 학문과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것이다. 제시문에 실린 작품은 전 6곡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자가 세운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감흥과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전 6곡(제시문 부분):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

후 6곡: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제3수에 나타난 시적 대상은 ‘순풍’과 ‘인성’으로 표현된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이다. 반면에 제4수에서는 시적 화자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자연인 ‘유란’, ‘백운’, 그리고 그리운 임금이 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자 자신을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천석고황’(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긴 깊은 병)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자연에 묻혀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태평성대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강조하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을 통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높은 대(臺)와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물, 그리고 떼 지어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화자가 머물며 바라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한 계절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중장에서는 사시, 즉 일 년 사계절로, 종장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시간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이것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자를 뜻하는 ‘교교백구’는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교백구’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풍월’은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이다. 둘 다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이다. ② ‘순풍’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을, ‘인성’은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 준다. ③ ‘유란’은 그윽한 난을, ‘백운’은 흰 구름을 뜻하는데 모두 화자가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⑤ ‘화만산’은 산에 가득한 꽃을, ‘월만대’는 대에 가득한 달빛을 뜻한다. 꽃과 달빛은 모두 자신이 벗이 되어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인데, 이것들이 산과 대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달빛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에서 화자가 충만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도산십이곡’은 제3수의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말하는 부분에, 제4수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부분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보기>는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는 부분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단의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의 별장과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산십이곡’과 <보기> 둘 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즐거워서이다. 또한 둘 다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미 부친에게서 별장을 물려받았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집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두 화자 모두 불운하다거나,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초야[시골]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삶의 물질적 여건이 필요함을 상정한다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보기>는 별장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전원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별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삶의 물질적 여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 <보기>의 화자는 현재 속세에 살고 있으며, 전원에는 별장에서의 삶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속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